



Greetings! I am Sr. Veronica Mary Szalajko. Polish nationality born and raised in Pittsburgh, PA. I am a middle child. I went to an all-girls high school in Pittsburgh. After high school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n September 8, 1959. For 28 years I taught most of the time second grade in Pittsburgh, Greensburg, Blairsville, Phoenix and Tucson. I enjoyed seeing the little one's expression

when they got the correct answers and when they understood the lesson. It was also a blessing to help prepare the second graders for the Sacraments of Penance and Holy Commu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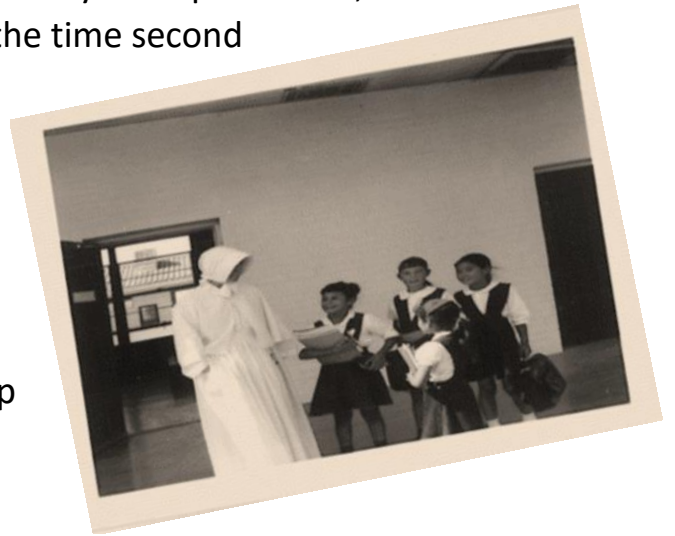
After 12 years in Arizona, I returned to Pittsburgh in June, 1988 and changed my ministry to Administrative Secretary, "Office Clerk". I worked with Sr. Joyce Serratore who was the



Principal at Sacred Heart High School in Pittsburgh. Not knowing that Sacred Heart and St. Paul Cathedral, both High Schools for girls would close at the end of the school year, June, 1989. Both schools were combined and became Oakland Catholic High School located at the former St. Paul Cathedral High School in Oakland. Hard to believe that I have been at Oakland Catholic High School for 27 years. Much has changed over the years but I have been blessed with great partners in the office. I started work using the typewriter to do letters, Scantron machine for grades, printing out report cards

and mailing them out to the parents. Today most of the work is done on the computer but we still use the typewriter when needed. My mission in the office is being welcoming, listening, giving information and direction. I like to be of service to others whenever I can.

"Hazard Yet Forward"



Sister Veronica Mary accepts 25 Year Service Award



안녕하세요! 저는베로니카 메리 스잘라즈코 수녀(Veronica Mary Szalajko) 입니다. 폴란드 태생이지만 미국 피츠버그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세 자녀를 두셨는데 전 둘째랍니다. 피츠버그에 있는 여고를 다녔고 졸업 후 1959년 9월 8일 사랑의씨튼수녀회에 입회했어요. 28년 동안 피츠버그, 블래스빌, 피닉스, 투산에서 초등학교에 근무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맞추거나 학습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저마다 나름대로 기쁨의 표현을 하곤 했는데 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게 참 좋았어요. 2학년 아이들이 첫 영성체와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걸 도와주는 일도 추억으로 남아 있네요.

아리조나에서 12년을 지낸 후 1988년에 피츠버그로 돌아왔는데 행정실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그 때 죠이스 세라토레 수녀님과 같이 일을 했는데 죠이스 수녀님은 피츠버그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이었어요. 그 당시 피츠버그 성심여자고등학교와 오클란드 성 바오로 성당 소속 여자고등학교 모두 1989년 6월에 폐쇄된다는 사실을 전 몰랐는데 이 두 학교가 통합되어 오클란드 가톨릭



고등학교가 됐고 학교는 오클란드 성 바오로 성당 소속 여자고등학교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이 곳에서 전 27년을 일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는군요. 그 동안 여러 변화를 겪었지만 좋은 행정실 식구들과 지낼 수 있는 축복도 받았습니니다. 제가 행정실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타자기로 공문 작성, OMR 카드, 성적표 인쇄 발송과 같은 업무를 했고 그 때는 대부분 모두 손으로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일들이 모두 컴퓨터로

이뤄지지만 가끔 필요할 때는 아직도 타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저는 학교를 찾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정보와 지침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데 언제든지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Hazard Yet Forward”

(25년 근속상 수상 사진)